

◎ 2003년 교회표어 ◎
언제나 무지개를
바라보라
(창 9:13)

함즐함울

(준비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기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55 호 / 발행일 : 2003년 10월 19일



설교영어통역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신기를 문의하고 있는 모습
(주일 2, 3부 예배시간 4층 예배당입구에서 수신기를 받을 수 있다)

희망의집 완공을 서두르며

태풍 '매미'로 인해 많은 재난을 입은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에서는 많은 집들이 무너져 수재민은 집을 잃어버린 실정이다. 이에 주님의교회는 수해현장에 가서 집을 잃은 수재민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기로 결의하고 여러 교회와 함께 '희망의 집'을 세우고 있다. 10월 10일 현재 진척상황을 진동교회를 시무하는 전광섭 목사가 편지로 알려졌다.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빠르게 안정되어가는 재난현장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지역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복구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구요. 완파된 집들을 이제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호 집은 지난 주일 오후에 들어갔더니 지붕이 바다를 닮은 푸른색 판넬로 아름답게 얹어져 완전한 집 모양을 갖추었고요, 이번 주에는 미장과 내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으로 모두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15평인데 실 평수가 15평인지라 아파트 20평 크기와 같기에 보기가 아름다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본당의 천정 철거작업에 들어가서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사역에 승리하십시오.

진동에서 전광섭 목사

모리유리양 4부예배 콘서트

예수의 살아계심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주님의교회 4부예배는 미니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어 많은 교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 주

부터 여러 차례 광고가 나간 바있는 이번 미니 콘서트는 일본 NHK 전속 가수인 모리유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종일관 잔잔한 감동을 자아냈다.

“일본인이거나 한국인이거나 주 안에서 하나”라는 말로 첫인사를 대신했던 모리유리는 1억 3천만 인구 중 기독교인이 70~80만 정도로 전체의 1퍼센트에 못 미치는 일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알리며 복음전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복음성가 가수이다.

이 날 모리유리는 20여 곡의 주옥같은 찬송가와 더불어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게 된 계기와 남동생의 죽음을 통해 주님께 간구했던 기도들을 고백하여 여러 성도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기도 하였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특히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혼자서 할 수 없다는 사

실을 깨닫게 된 그의 간증과 함께 울려 퍼진 찬송가 405장은 마치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울을 연상시키는 듯 하였다.

“한국인의 신앙심을 일본으로 가져

가고 싶다. 콘서트는 끝나지만 여러분들의 웃음과 뜨거운 마음은 가져가겠다. 예수의 살아계심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를바가 없다.”는 말로 끝인사를 마치며 밝게 웃는 그녀는 일본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 날의 일본어 통역은 변아경 권사의 통역으로 이루어졌다.

/ 전수경 기자

2004년도 정책당회

주님의교회가 나아갈 4가지 비전 제시

10월 10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10월 정기당회 및 2004년도 정책당회가 있었다.

먼저 10월 정기당회에서는 10월 19일 3부예배 시간에 평양노회와 자매결연관계인 미국시라큐스노회원의 내한방문 중 우리 교회 방문을 맞아 3부예배 설교도 피터앤더슨 목사가 맡기로 한다는 것과 교회에 익숙하지 않는 이들을 자연스럽게 교회로 초청하기 위한 전도행사로 인기 가수 해바라기 콘서트를 11월 2일(주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갖고 이에 앞서 1부 순서로 믿지 않는 가족초청의 시간과 식사교제의 프로그램을 갖기로 한다는 목회보고가 있었다(해바라기의 멤버들은 3개월전 주님의교회에 교인으로 등록).

또한 강당의 음향, 영상설비공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강당의 음향설비가 노후되어 그간 음향위원회를 비롯 관계기관에서 여러번의 시연회를 통하여 고민한 결과 음향은 다니엘시스템으로, 영상은 유환미디어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0월 26일 주일부터 새로운 음향과 영상을 맞출 수 있을 예정이다.

저녁식사 후에 2004년도 정책당회가 이어졌다. 내년부터 사도신경을 예전처럼 환원하고, 예수전도단과 함께 11월부터 목요모임을 갖고, 선교관련 위원회를 해외와 국내로 재편하고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선교방향에 대한 논의와 행정구 중심으로 교구재조정하여 쉽게 자신의 교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2004년 주요목회일정은 제직수련회(2월), 신앙사경회(2~3월), 무지개축제(5월), 교구수련회(7~8월), 특별새벽기도회(4, 12월) 등이다.

담임목사는 ‘주님의교회의 Vision 찾기와 다지기’라는 제목으로 4가지 Vision과 몇 가지 구상을 제안하였다. 첫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원 및 분골을 합동으로 모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님의동산 건립, 둘째 예수님을 전파시키는 교회를 위하여, 절대

빈곤층을 위한 사역과 재난구호사역을 신속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재난구호예산 특별책정, 셋째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교회의 청소년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비전팀’ 혹은 ‘비전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구성하여 청소년사역에 집중하는 비전을 구체화하며 예산의 25%를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고, 기독교 중학교에 ‘강당’을 건축기부하여 제2, 제3의 주님의교회를 번식시키는 일, 넷째 번식하는 교회로서, 번식 후 매10년마다 ‘번식하는 교회축제’를 하자는 등의 Vision 및 제안이었는데 추후 논의를 통하여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2004년도 제직부서는 예배위원회에 설교영어통역사역팀을 두고, 교육위원회에 탁아부를 두어 주일 2, 4부예배와 수요일예배시간에 운영하며, 기관선교·사회선교·사회봉사위원회를 국내선교위원회로 통합하고, 양육위원회를 신설하여 새가족팀·양육사역팀·중보기도사역팀·자원봉사연결팀·목요모임팀 등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며, 사무국을 두자는 개편안이 제안되었는데 좀더 심의한 후에 확정하기로 하였다.

제1B 여성교회

강남금식기도원에서의 특별한 일레회

10월 7일, 오전 제1B 여성교회는 강남금식기도원에서 일레회를 가졌다. 초속으로 달려오는 60대의 망각의 늪에서 무엇인가 동감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으면 좀 더 나은 삶으로의 방향이 주어지지 않을까? 여성교회 모임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걸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차에 올랐다.

우리의 굳은 마음과 퇴색되어가는 마음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처럼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이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듯이 '아마 우리 크리스천이면 반드시 지녀야 하는 덕목이란 이 바람처럼 늘 가리워져 보이지 않는데 어떤 깊음이 있을거야...'라고 생각하는 사이 가을바람이 스산한 긴 강줄기를 따라 버스는 강남기도원을 향해 치달렸다.

우리 이영남 권사님은 소정의 선물 꾸러미를 들고 몽골로 선교 가시면서 조용한 몸놀림으로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이광자 권사님 또한 서울여대 총장으로 계시면서 엄청나게 큰일을 소리없이 계획하시고 행하지 않으셨는가 (앤 빌리그레함 여사 초청).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 바람처럼 보이지 않게 그렇게 조용한가보다.

죄인들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그 자체이어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 분이 현현

하시면 그 누구도 그 분 앞에서 있을 수 없고, 보이지 않으신 존재이셔도 무릎꿇으면 실상으로 나타나는 그 분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지... '나는 사랑이라!' 결국 사랑으로 귀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저희를 가슴 안에 오셔서 저희를 자유롭게 하시니 죄진 자도 그 앞에 무릎만 꿇으면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아니면 감히 누가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렇기에 해 뉘엿뉘엿 지는 영등포 시장 근처에서 만난 김양자 권사님은 작은 손수레에 밭 맛사지 도구랑 먹거리랑 사랑을 담아 이 집 저 집을 걸어다니시겠지. 가난하게 살기를 갈망하는 저희가 우리 1B여성교회엔 많다. 위대한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 세운 병원유치를 위해 전 소유를 쏟아 부었으나 감당할 길이 없어 모금운동을 다니다 고향 알사스에 들렀다고 한다.

그를 영접하러 나온 각계 인사들과 친지들이 남루한 모습의 그에게 "왜 3등열차를 탔느냐?"고 물었을 때 "4등열차가 없어 탔다"고 대답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이 선택해야 하는 길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랑, 사랑은 그 어떤 보약보다 효험이 있는 우리에게 주신 특효약이며 낯선 점이다. 사랑없이는 아무 것도 아니요 울리는 팽과리일 뿐, 십자가에 나의 생각을 조금만 접목시키면 우리의 삶 속에 은총이 내려 신비와 환희와 경이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주셨다.

우리는 맘껏 기도하기 위해 작은 기도실로 흩어졌고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다. 작은 공동체의 공통된 언어였다. 다음 모임에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외로우신 어른을 찾아뵙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의 이런 모습은 십자가를 통해 바라본, 자신들의 회개에 담긴 아름다운 여성교회 회원들의 고개숙임이 아닐까 생각된다. / 이견호 집사



방송부, 비전문가의 전문적인 봉사

벌써 방송부 봉사를 시작한지도 5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우연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송부 봉사는 그나마 믿음이 부족한 나를 교회와 연결시키는 유일한 끈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 주님의교회에 다니면서 그냥 주일날 집사람따라서 왔다갔다하며 좋은 영화 한 편 보러온다는 가벼운 마음에 따라나서던 시절이다. 그 당시 같은 구역원들은 여러가지 분야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셨지만 그저 나는 주일날 나가는 것도 큰일이고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뭘 또 시간을 내서 따로 봉사를 하게 되면 쉬기는 언제 쉬는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때였다.

그러던중 같은 구역원 중 방송부 봉사를 하던 집사님이 남선교회 체육대회 때 그만 인대를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금도 신축강당 4층에 방송실이 있지만 그 때는 아예 강당 자체가 정신여고 본관 4층에 있어서 예배나 방송을 위해서는 4층까지 걸어 올라가야만 했다. 하지만 인대를 다쳐서 올라 다니실 수가 없으니 누군가가 대신 봉사를

해야만 했다. 그러던중 평소 오디오에 관심이 있던 나에게 권유가 들어왔고 그냥 다리 나오실 때까지 임시로 잠깐 하려던 것이 어찌다보니 그냥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 물론 워낙 취미가 그쪽에 있다보니 또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민한 청감이 봉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나 자신도 나의 잠재된 능력에 놀라곤 하였다.

오래전부터 나의 하나의 꿈은 나만의 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었는데 고맙게도 하나님께서는 억이 넘는 전문가 시스템을 나에게 맡기셨다. 마치 '야! 이만하면 됐니, 열심히 해봐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아직도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잘 모르지만 성도가 많고 적음, 비오는 날 그리고 개인 날, 혹은 다른 사람이 기계조정을 잘못 해놓은 것 등 미세한 부분까지도 구분하여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봉사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 주셨다. 다른 분야와 다르게 드러나지 않으며 또한 생방송이라 조그만 실수가 바로 예배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또한 교회에 빠지게 되면 다

른 분이 대신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부담이 있다. 그렇게 전문적인 봉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우고 적응하는데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다른 분이 해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지면을 빌어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있었다면 모두 떨쳐 버리고 우리 모두의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음을 기억하며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이젠 방송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집사님이 교회에 계셔서 봉사하는 우리로서는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되는지 모른다. 잘은 모르지만 교회봉사에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교회의 재정, 건축, 찬양대 지휘, 방송, 통역, 특수봉사... 다들 바쁜 시간을 쪼개어 봉사하고 계시는데 그중에는 비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다.

그동안의 방송부 봉사도 그러했다. 거기에 덧붙여 학생들과도 같이 사용해야 하니 고장으로 인한 방송사고의 위

호산나찬양대 산행

청계산에서의 다리들의 합창

주일마다 찬양을 위해 동이 터 오지 않는 아침부터 모이는 1부 찬양대, 그들의 산행이 10월 12일 열렸다. 1부예배를 드린 뒤 찬양 연습을 하고 모두들 편안한 복장으로 바뀐 입고 최대한 승용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한 대마다 인원을 채워 과천 서울대공원에 있는 청계산에 도착, 서울대공원 입구까지 가는 코끼리열차에 올랐다. 찬양대원들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어린아이마냥 웃고 있었다.

40여명의 인원은 제각기 자기 속도에 맞추어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흙길에 쌓여가는 낙엽들과 길게 뻗은 나무마다 조용히 물든 붉고 노란 빛들로 인해 길 따라 즐거움과 정겨움을 솟아나게 만들었다. 지칠 때쯤 등장하는 약수터에서 갈증을 해소하며 "깊은 산속 웅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라며 까르르 웃기도 한다.

오르다 터가 생기면 잠시 모여 쉬고 이내 또 부지런히 걸으며 리프트까지 다다른데 걸린 시간은 두 시간이 더 되었다. 몇은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저 걷는 것이 좋아 끝까지 걸어서 대공원 출구까지, 더 나아가 코끼리열차길을 따라 걸어가기도 했다. 어느덧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에 서둘러 차에 탔다. 이내 빗방울이 굵어져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녁식사를 하는 찬양대원의 얼굴에는 오늘의 일정이 무사히 끝났다는 편안한 여유와 행복한 피로가 엿보였다. 일정을 위해 온갖 신경을 쓰고 계셨던 찬양대 대장과 총무를 위해 모두 힘찬 박수를 보냈다. 이번 산행을 보이지 않게 그러나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번 산행에 있어 단연 주연이자 멋진 연출자이셨다.

협성은 그만큼 더 컸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별탈없이 잘 사용한 것은 여러 집사님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우리의 막강 후원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전문가가 옆에 있으니 슬슬 하나, 둘씩 고장이 난다. 왜 그럴까? 이젠 전문가를 중심으로 더 연구하고 개선하여 더욱더 성도들에게 양질의 방송을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비전문가가 전문적인 일이 가능한 곳이 교회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 임익수 집사

몽골선교보고 마지막이야기(4회 연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한국의 신세대 인기 보컬팀의 갑작스런 불참으로 우리 문화선교팀의 조성곤 집사가 이 행사에 간증과 찬양으로 협력하게 했던 하나님의 뜻과 돌아와서 그 기적의 현장을 이 지면을 통하여 간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문동학 담임목사의 9월 7일 주일설교에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께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 그리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 다락방 성도 120명에서 3,000명을 더하게 됨으로서 두려움과 시기심과 꾀박을 불러일으켰음을 상기시키는 말씀을 주신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국대사와 울란바타르 시장이 함께 개회를 선포한 한·몽골 문화행사에서 10여년간 몽골의 한국선교와 성령님이 함께 일구어온 놀라운 역사를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1991년부터 12년 동안 몽골의 한국

선교사들은 교과를 초월하여 평균 80~90명이 모여 월례 기도모임을 가져 왔다. 선교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매일 새벽 합심기도를 한다고 한다. 몽골에 선교의 열매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곳 땅 끝까지 가서 그 민족을 무조건 사랑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피와 땀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교과를 초월한 합심기도로 선교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마음의 할례'를 이미 받은 옥토발과 같은 몽골인들의 순수한 열정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성령의 상주시는 이심을"(히11:6, 눅11:13) 듣고 믿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위해 지으셨기에 가능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는 문동학 목사가 당부한 대로 몽골에 가서 윤순재 총장을 만나고 울란바타르 대학을 둘러 보았다. 신생국 몽골을 바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세우도록 성령에 매인(행 20:22) 많은 선교사를 만나고, 이들을 통해

손수 일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왔다. 신생 몽골과 더불어 한국도 과거 신생의 어려움과 전쟁의 환난 중에 그러했으나 지금은 타락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이 땅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은혜를 전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겸손해진 마음이 되어 돌아올 수 있었다.

8월 25일 월요일에 귀국하여, 27일 수요일에 시간에 간단한 보고를 하고, 30일 토요일에 자체 평가시간을 가졌다. 하나도 우연이 아니었음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선교여행 중에 있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그렇게 고백한 뒤 서로에게 감사를 전하고 뒤돌아 시간을 가졌다.

한·몽골 동시통역으로 많은 성도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전해준 한국어과 대학원생 채벨래이가 보내온 메일을 읽었다. 동행하며 느낀 감동의 내용과 자신은 권오승 장로의 몽골 딸이 되겠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었다. <끝> / 이희숙 권사(1-4구역)

교회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씁시다

'소천(召天)하셨다'는 말은 '별세(別世)하셨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로

최근에 한국 교회 어느 지도자의 죽음을 알리는 광고에서 '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셨다'는 문장을 보게 되었다. 한국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교회에서 발표한 이러한 광고는 매우 부끄러운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소천(召天)이라는 어휘는 우리 말 사전에도 없는 신조어로서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의미의 표현이라면 이 어휘는 능동형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수동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소명(召命)이나 소집(召集)이란 단어의 경우 능동형일 때 그 주체는 부르는 존재를 말한다. 예를 들면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를 찾은 학생이 '나는 소명했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소명을 받았다'고 표현한다. 비록 사전에도 없는 어휘이지만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천을 받았다'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토록 실수가 많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불러온 대로 죽음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는 '별세(別世)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로 사용함이 적절하다고 본다.

<기독교용어연구회 제공자료>

성지순례시리즈 10

용서와 화해의 골로새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골로새로 가는 길에 옥색 빛 감도는 에르키구호수를 배경으로 사과 과수원이 끝없이 펼쳐진다. 겨울에도 아름다운 터키 땅을 보면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을 먹고 난 후에 나른한 몸을 창가에 기대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골로새 지역에 관한 자료를 함께 보자고 권하신다.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남서쪽의 브루기아 지역, 현재로는 호나즈 국립공원 근처의 리코스강 유역에서 발달하기 시작했다. 리코스 지역의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 등과 더불어 기독교 도시를 형성했고, 동방과 서방 사이의 교통 중심지로 급성장하면서 각광을 받았다.

골로새교회는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에바브로에 의해 세워졌다. 빌레몬이 그의 집을 교회 집회 장소로 제공했다고 전해진다. 자신의 집을 이렇듯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놓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셨을까! 바울도 그를 사랑하는 동역자로 부르고 있다.

골로새교회와 관련지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그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로마로 달아났다가 그 곳에서 바울을 만나 회개하고 신자가 되었다. 바울은 나중에 부자처럼 친밀해진 그를 용서해달라는 서신을 골로새교회에게 보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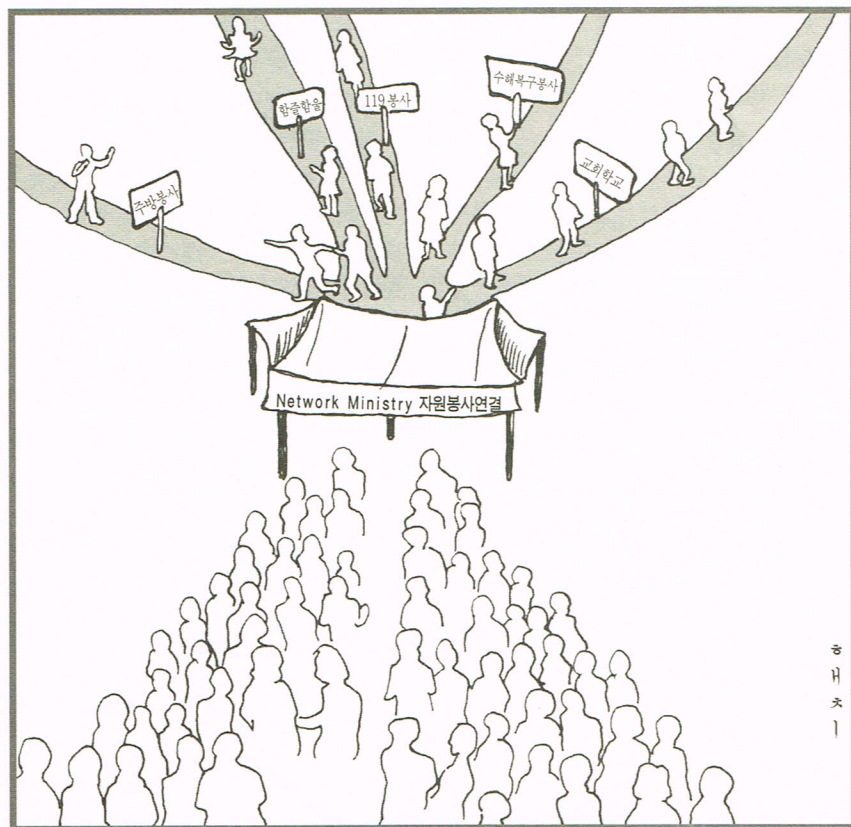
다. 오네시모(Oney-mos)는 원어로 '유익하다'는 뜻인데, 처음에는 세상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유익한' 종이 되었다(몬10). 무익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오직 은혜로만 유익하게 된 우리의 자화상이 바로 '오네시모'가 아닐까! 오네시모는 말년에 디모데를 이어 교회의 감독이 된다.

용서와 화해를 품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던 골로새교회는 그러나 바울이 옥중서신을 쓰던 무렵에 이미 거짓교사들이 등장하면서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로 상처를 입기 시작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세상의 초등학교문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다. 골로새서를 다시 잡아 읽었다. 감옥에 갇혀 순교를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노사도가 골로새교회를 향해 품었던 안타까운 사랑과 강렬한 소망이 전달되어 온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오후 4시경 어느 호젓한 시골길 근처에 버스가 섰다. 선교사님이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하신다. 따라가 보니 밀밭인데 그 너머에 과수원들이 있다. 주위 경치를 둘러보는 우리에게 선교사님이 말씀하신다. 바로 우리가 서 있는 밀밭 지역이 골로새도시가 있었던 곳이라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이 밀려들었다. 그토록 큰 고대도시가 거의 자취도 없이 사라지다니... 터키 고고학자가 설명을 덧붙인다. AD 7~8세기 사라센에 의

해서 정복당해 파괴된 골로새는 12세기 말에 다시 터키의 침입을 받으면서 폐허가 되었다. 그 후 몇 차례의 지진을 겪으면서 골로새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완전히 잊혀졌다가 1935년에 이르러서야 Hamilton의 탐사로 발굴되기 시작했다.

밀밭을 내려오며 잡초에 묻혀 유물로서도 가치가 사라지는 작은 돌들을 보자니 모든 육체는 반드시 시든다는 말씀이 새삼 가슴아프게 다가왔다.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그리 멀지 않은 라오디게아 지역이 눈에 들어온다. / 하화주 집사



나는 오늘도 고쳐지고 다듬어져가는 하나님의 제품이다

내가 즐겨쓰는 말이 있다. 버리면 쓰레기, 고쳐쓰고 나눠쓰면 재활용품! 요즘 아파트단지 어디를 가보아도 멀쩡한 제품들을 쓰레기로 내놓은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마음이 아프다. OECD가맹국 중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자원최빈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멀쩡한 제품들을 쓰레기 취급하여 마구 버려 가슴아프다. 가전제품을 비롯하여 가구들을 너무 흔히 볼 수 있다.

나는 구두를 사면 한 십 년 넘게 뒤통을 바껴가며 신고다닌다. 왜냐하면 오래 신은 신발이 가장 편하기 때문이다. 친구와 신발은 오래될수록 좋다는 속담이 있듯이 관리하며 지금까지 신고 있으니 참 오래된 것이 좋다는 것을 내 발로 느낀다. 우리 집에는 오래된 것이 많이 있다. 특히 믹서기는 참 소중하다. 내게 매일 주스를 만들어 주니 여간 고맙지 않다. 아주 오래된 구형이지만 전기가 110V라는 것 말고는 불편한 것이 없다. 얼마나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소음도 적고 집사람도 정이 들어 매우 좋아한다.

이런 것은 사무실에도 있다. 공구함이 매우 오래되어 참 골동품감이다. 30년전에 어느 선배가 공장을 새로 짓고 이사가면서 버린다고 하기에 내가 쓰겠다고 가져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찾을 수 있도록 구획이 잘되고 정리정돈이 잘되어 공구함은 우리 사무실의 역사요 보배요 밑

천이다.

그리고 또 팩스가 있다. 너무 오래되어서 고물 취급을 받는데 그래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아니한다. 이따금 말썽을 부리면 어느 직원도 말없이 고쳐준다. 우스개소리로 직원 한 사람이 새 것으로 바꿔보자고 말한 적이 있다. 그때 모두들 합창으로 “야! 버리면 제일 골치아픈 폐기물이야. 그냥 망가질 때까지 쓰자”는 합성이 터졌다.

요즘 자동차도 그렇다. 처음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기술축적이 부족하여 간혹 잘못 만들어진 차가 생산되어 3년을 못가서 고쳐쓰기가 힘든 때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형성된 2,3년 마다의 새 자동차 바뀌타기 소비문화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얼마나 훌륭한 자동차가 생산되는지 고장이 나서 길거리에 서있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그동안 자동차가 좋아진 것도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었다. 고장이 나면 좋은 부품도 공급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니 구태여 새것으로 바뀌탈 생각을 아니한다. 얼마나 자동차가 좋아졌으면 중고 자동차가 동남아 국가에서 환영을 받으며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는가. 잘 관리하고 고쳐쓰는 소비자가 많으니 생각이 건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버리면 공해덩어리 폐차요 고쳐쓰면 나의 편리한 자동차가 된다.

교회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눔의 주간이 있어서

교우들 가정에 불필요한 것들을 모아 꼭 필요한 곳에 보내주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훌륭한 사업이다. 그런데 우연히 나눔의 물품(의류)이 보내진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보아서는 아니될 꼴을 보고만 것이다. 아마 계절에 맞지 아니하여 보관하기가 어려워 멀쩡한 것을 쓰레기 취급하고 너마로 처리한 것이었다. 분명히 입을 수 있는 옷이다. 나눔의 선한 뜻이 이렇게 곡해되고 깃잡힐 수가 있는가.

교회내에서도 방치된 비품들 중에 손을 보면 교우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부서지고 고장이 나면 교회 안에는 훌륭한 재능과 기술을 가진 교우들이 있으니 수리하면 되고 그리고 기술이 더 필요한 것은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무조건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일은 없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용량이 부족하면 보강하면 되는 일이 아닌가. 더구나 우리 주님의교회는 정신학원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고쳐쓰고 자주 보강을 해야 한다.

교우들의 헌금은 매우 귀중한 것이다. 써야할 곳에 의롭게 쓰여져야 한다. 아껴쓰고 절약해서 번식하는 교회가 꼭 되어야 한다. 새것이라고 고장 안난다는 보장이 없고 못쓰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필요 이상의 낭비는 막아야 한다. 다시 한 번 내 가정과 우리 주변에서 버리면 쓰레기요 고쳐쓰면 재활용품이 되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자.

오늘도 나의 간절한 기도제목 중에 ‘아나바다’가 들어있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고쳐쓰고의 간절한 기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면 그냥 나는 쓰레기가 되고 나를 고쳐쓰시면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아신다. 나는 오늘도 고쳐지고 다듬어져가는 하나님의 제품이다. 나는 배구나 축구나 농구 등의 운동은 모른다. 그러나 ‘아나바다’ 운동만은 환경정화운동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하고 싶다. 아멘.

/ 서길원 안수집사

예배부를 소개합니다

예배부에는 먼저 성찬을 준비하는 ‘성찬팀’이 있다. 성찬팀은 연 6회에 걸쳐 실시되는 성찬예식을 위하여 떡(전병)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비치하며 성찬집기를 성결하게 준비함은 물론 위원들 손장갑을 준비하고 당일은 오전 일찍부터 나와 하루를 온전히 봉사하며 섬기며 보낸다.

두 번째로 꽃꽂이팀이 있다. 꽃꽂이팀은 절기 꽃꽂이 즉 신년맞이, 고난주간, 부활주일, 창립주일, 감사주일, 대강절, 성탄주일 등의 꽃꽂이를 한다. 또한 교회 화분도 꽃꽂이팀이 관리한다.

세 번째로 예배팀이 있다. 예배팀은 매 주일마다 주보와 헌금봉투 준비, 성경찬송을 소리 못한 성도를 위하여 성경찬송 비치, 절기예배와 행사의 현수막 준비, 목사님들의 카운이나 증정할 성경찬송 준비, 절기장식, 또한 예배시에 필요한 기구도 준비하여 비치한다.

/ 계학용 장로

교회소식

▶유아세례신청 및 입교, 세례 신청을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유아세례식은 11월 5일, 입교 및 세례식은 12월 3일, 각각 오후 8시 수요 성경공부 시간에 있습니다. 유아세례를 받기 원하는 분은 10월 19일(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10월 19일과 26일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자모예배실(1층 중교무용실)에서 2회 있을 유아세례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교 및 세례를 원하는 분은 11월 9일(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제3집회실에서 4회 있을 입교 및 세례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세례는 만 2세 이하의 어린이는 부모가 모두 세례교인이어야 받을 수 있으며, 입교는 유아세례를

받고 나이가 만 15세 이상, 세례는 6개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양노회 가을 정기노회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온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 및 교역자가 참석합니다.

▶성지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지난 주일 1차모임 결과 1월 초순부터 중순에 15일간의 일정으로 순례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소요경비는 대략 300여만원입니다. 성지순례를 희망하는 분은 사무실에 비치된 성지순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10월 26일(주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1학기 나이의 성지를 찾아서를 수강하지 않으신 분의 경우 별도의 공부모임에 참석하

여야 합니다. 성경과 역사에 관한 이해 없이는 순례가 아니라 관광일 뿐입니다. 11월 2일(주일)에 2차 준비모임을 갖고 여행사 섭외, 총무 선출을 통한 성지순례준비에 들어갑니다.

▶사진수첩제작을 위하여 교인들의 사진을 받습니다.

그동안 사진을 내지 않으신 분들과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5년 이상 지난 교우들도 교회 사무실로 11월 2일(주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주일)과 11월 2일(주일)에 교회현관에 임시사진관도 마련되니 주중 사진을 준비하지 못하신 교우들은 즉석촬영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중앙일보 주관 서울국제마라톤이

11월 2일(주일) 오전 9시부터 종합경기장에서 있습니다. 오전 9시~10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교통통제되오니 자세한 경기코스(아래 그림) 참조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www.pcltv.org에서 현재 시험가동중입니다.

유소년축구 홈페이지도 참고 바랍니다 (youthsoccer.cyworld.com).

▶도서실이 5층에 개관되어 성도를 기다립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가능하며 아동도서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매 주일 기증도서를 받습니다. 도서실 봉사자에게 문의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전화 : 02-416-5181
홈페이지 : www.pcltv.org

◆기사제보안내◆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자에게, 함줄함을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핸드폰 : 011-466-4736

▶이메일 : chhylee@korea.com